

# 임실군, 비산먼지 특별점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건설업 시행 대비, 내달 8일까지 비료·시료 제품의 제조업 등 4개 분야 106개 사업장

임실군이 미세먼지 없는 청정임실 조성에 발 벗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하고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건설업, 비료 및 시료 제품의 제조업 등 4개 분야

106개 사업장이다. 특히 건설업의 공사 현장 중 40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든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해야 하며,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점검 시 중점 점검 사항은 방진벽, 방진덮개, 세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여부, 작업장 살수시설, 이송·수송 시 비산먼지 억제장치, 기타 환경 관련법 준수사항 등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위반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한 사업장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위반 사업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사현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현장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민원을 해결함으로써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정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살기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는 지리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샤인머스켓 포도를 공동 선별해 28일 캐나다 첫 수출 선적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남원시, 샤인머스켓 캐나다 첫 수출

### 지리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2kg 240박스, 4kg 120박스 수출

남원시 주요 수출 농산물 중 하나인 샤인머스켓 포도가 지리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 선별해 28일 캐나다로 2kg 240박스, 4kg 120박스 총 360박스(2,100만원)를 올해 항공으로 첫 수출했다.

남원에서 생산된 포도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맛과 당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2년 처음으로 캄보디아를 뉴질랜드, 미국으로 수출을 시작하였으며, 샤인머스켓은 2021년부터 베트남 및 홍콩으로 수출하게 되었다.

남원 샤인머스켓은 심진강 부근의 평야지부터 해발 500m 지리산 고령까지 재배하고 있으며, 고령지 샤인머스켓은 일조량과 밤낮의 일교차가 높은 당도와 식감있는 과육과 크기가 크

고 출하량이 많아 수출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공동선별을 통해 수출은 물론 국내 대형유통매장 납품 및 홈쇼핑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샤인머스켓 포도는 올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정된 캐나다 수출 검역 단지로 지정되었으며, 2024년에는 기존 홍콩, 베트남뿐만 아니라 캐나다, 중국에도 수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남원시는 민선 8기 최경식 시장의 공약사업인 농축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홍콩 한인홍 매장과 베트남 하노이 K마트에서 남원 농특산물(샤인머스켓, 딸기, 복숭아, 가공식품 등) 홍보 관측행사를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 발효관광재단, 대학생 지역혁신 아이디어 발표회

### 우석대 학생, 구체적인 대안 현실성 높은 아이디어 제안

지난 27일 순창군(군수 최영일) 출연 기관인 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운숙)에서 'Delicious(디리셔스) 순창'을 주제로 한 대학생 지역혁신 아이디어 발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발표회는 한국사회적기업학회·우석대학교 LINC3.0사업단이 주최하고, 우석대학교 혁신성장연구소가 주관하며, 순창군·순창발효관광재단·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한국관광공사·전주미식가협회·문화정당의 후원하에 개최됐다.

'대학생 지역혁신 아이디어 발표회'는 지역대학과 지자체,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전북 관광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사로, 이날 발표회에서 우석대학교 학생들은 '맛있는 순창' 이미지 극대화를 위해 지난 학기 초 순창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과제는 △순창발효테마파크 활성화 방안 △순창재생프로젝



지난 27일 순창군 출연기관인 순창발효관광재단에서 'Delicious(디리셔스) 순창'을 주제로 한 대학생 지역혁신 아이디어 발표회가 개최됐다.

트 △한 끼 한 포, 순창 프로젝트 △강천산 방문객 대상 음료개발 △맛있는 순창농촌유학 등 다섯 가지로 학생들은 각각의 주제에 맞게 구체적인 대안과 현실성 높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특히, 첫 번째 주제인 '순창발효테마파크 활성화 방안'은 사계절 방문 유

도를 위한 프랑스식 미식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목을 받았으며, 인구소멸 지역의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그램인 '맛있는 농촌유학' 주제 또한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할 구체적인 해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연말연시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순창군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12월 한 달 동안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지류상품권 포함)으로 상향하여 운영한다.

군은 이번 구매 한도 상향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2월 한 달 동안 개인 기준 지류, 모바일, 카드상품권을 합산하여 100만원 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기존 20만원으로 제한했던 지류상품권은 100만원 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할인율은 지류, 모바일, 카드 모두 변동 없이 10%이다.

지류상품권은 농협, 신협, 우체국 등 판매대행점 27곳에서 구매가능하며, 모바일·카드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



권 척(chak) 어플에서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구매한도가 확대되는 만큼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환전 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대상업소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하는 등 부정유통 단속도 엄중히 진행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보건소, 자살 중재 훈련 전문가 과정 실시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28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맞춤형복지 사례관리자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지역사회 자살 문제 개인강화를 위한 자살위기 중재훈련(TA) 전문가 과정을 실시했다.

자살중재 훈련이란 알아차리기(Aware), 다가가기(Approach), 도와주기(Assist)로, 단계별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배우고, 자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훈련은 남원시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읍면동 맞춤형 사례관리자에게 자살 위기 발생 상황에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돕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이론 및 단계별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임실군산림조합,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교육

임실군산림조합(조합장 정희석)은 '11월 산림경영지도의 날'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산주·임업인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교육'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강의품목은 두릅, 조경수, 개안(헤이즐넛)으로 진행했다. 관내 조합원과 산주의 강의 희망 품목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했다.

강사는 1일차(두릅) 순창군산림조합 과장 주용우, 2일차(조경수) 고창군산림조합 조합장 김영건, 3일차(개안-헤이즐넛) 강진(헤이즐넛 팜 대표) 김중열을 초빙하여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조합원 모씨는 "산림조합에서 임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차 근절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가 소방용수 시설 주변의 불법 주차 차량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나서며 운전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소방용수 시설 주변에는 화재 진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량 주차정차가 금지되어 있어 이를 위반하고 시설 5m 이내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주차하면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차 출동 시 불법 주차 차량이 용수시설을 가로막은 경우 강제 처분하고 소방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손된 차량은 보상받지 못한다.

남원소방서는 △유관기관 합동 불시 단속 △경고장 부착 △홍보전단지 배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화재발생시 초기 진화용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소재실 서장은 "잠깐의 편리함을 위한 불법 주차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